

전주시 우수저류시설 공법 선정 의혹

참가 자격에 바다면 제외한 PC공법 명시, RC·PC 병합시공 업체 참가

전주시가 우수저류 시설 공법 선정 과정에서 관련업체의 원성을 사고 있다. 더욱이 전주시는 관련업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원론적인 이유를 들며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망감을 주고 있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전주시는 공고를 통해 입찰참가 자격 공법선정 대상을 바다면 제외된 PC(프리캐스트)공법이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RC(현장타설)와 PC로 병합 시공하는 업체까지 참가시켰다.

특히 전주시는 1차 서류심사에서 대

상이 되지 않은 가운데 걸러내지 못했다.

여기에 사업비가 가장 많은 송천 1 지구에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A업체가 선정되면서 골치아픈 시선이다.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을 모두 국민안전처에서 지정한 위원들로 구성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국민안전처 심사위원 명단을 발주처에 내려 보내고 발주처에서 심사위원을 추천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국토부와 환경부 같은 다른 부처의 예산을 받

아 집행하는 심의평가의 경우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들이 반반씩 배정돼 발주처의 권한으로 공법을 심사하는 게 보편적이다.

하지만 전주시 우수저류 시설 공법 선정의 경우 발주처 내부 위원들을 배제한 채 모든 심사위원을 국민안전처에서 지정한 평가위원들이 평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법심사자료의 평가기준의 항목별 평가점수가 없는 것도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의심을 사고 있다.

즉, 항목별 점수가 없으니 심의시 어떤 기준으로 평가됐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심사위원 명단을 심사 당일 받았다. 또 PC 업체로 입찰을 제한하다보니 해당되는 업체가 단 1개 업체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돼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병합 시공하는 업체까지 포함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시는 이달 초 송천1지구(총사업비 170억원), 매화지구(156억원), 전주초지구(124억5,000만원)의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공법 선정을 공고했다.

/신광영 기자

위안부 할머니 12명, 정부 상대 손해소 제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나눔의집,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에 따르면 강일출, 김원옥, 김군자, 김복동, 김복득, 박옥산, 안점순, 이순덕, 이옥선, 이옥선2, 이용수, 하수임 할머니는 30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법에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을 냈다.

할머니들은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확인된 위헌 상태를 제거하기는커녕 그 영속화를 선언해 자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신·물질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할머니들은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

로 나아가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할머니들은 "피해자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중재 절차를 포함해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한국 정부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나아가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 해결 노력'까지 합의 해줬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사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뤘다.

/뉴시스

남원서 대형통유리예

목 찢려 40대 사망

30일 오후 2시51분께 전북 남원시 동충동 한 공사장에서 인도에 세워진 대형 통유리가 넘어져 박모(40)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박씨가 깨진 유리조각에 목과 가슴 등을 찢려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출혈이 심해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장 주변 인도에 세워놓은 통유리가 강풍에 넘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카바이러스를 막아라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지카바이러스 관련 발열검사를 위해 검역소를 통과하며 관계자로부터 체온측정을 받고 있다.

“전주푸드의 주인공은 바로 시민입니다”

시, 소비 촉진활동 적극 나서

전주시가 건강한 먹거리 주권 확보를 위한 '전주푸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응원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전주시는 '건강한 시민, 지속가능한 농업, 독립경제도시 전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전주푸드를 응원하기 위해 지역소비 촉진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생활권 가까이에 위치한 직매장을 애용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현재 전주푸드 직매장은 종합경기장 내 착한자전거 옆과 한라비발디아파트 뒤편, 구 효자 4동 주민자치센터 등 3곳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또 다가오는 추석 선물 세트(꾸러미)를 전주푸드에서 구입하기로 했다. 선물 꾸러미는 상차림 2종(3만원, 5만원)과 건강잡곡 2종(3만원, 5만원), 과일(배, 복숭아) 등 총 다섯 종류다. 또한 각종 행사에서 필요한 먹거리를 전주푸드에서 구매하고, 식당과 전주푸드 연결하기 등 전주푸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특히 전주푸드 활성화를 위한 응원 프로그램은 '전주경제 활성화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전주시민'이라는 공감대 확산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전주푸드 직매장 3곳은 월평균 매출 3억원을 올리고 있으며, 올 연말에는 2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매장 매출의 90%는 농가에게 환원된다.

/김영재 기자

대법, 제자 가혹행위 '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 교수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

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A(30)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수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또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등 1억1100만원의 사적으로 쓰고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뉴시스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 정기총회' 서 회장 선출 된 김승수 전주시장 임기 시작

김승수 전주시장이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제4기 회장 임기를 시작한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청북 재천사에서 열린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김승수 시장이 임기 시작을 시작했다. 부회장은 고길호 신안군수, 사무총장은 윤상기 하동군수가 각각 임기를 시작한다.

한국슬로시티는 지난 2007년 12월 아시아 최초로 전남 담양군, 장흥군, 신안군, 완도군이 슬로시티로 인증받은 이후 경남 하동, 충남 예산, 경기 남양주시, 전북 전주시, 경북 청송군, 경북 상주시, 충북 제천시, 강원 영월군 등 12개 지역이 인증받았으며, 재인증에서 탈락된 장흥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활동하고 있다.

이후 2011년 전주를 비롯한 완도, 청송군, 상주시 등 슬로시티 지자체로

구성된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는 회원 지자체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국적 슬로시티 모델을 만들고 슬로시티 기본이념을 실현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모임으로 현재 11개 시·군이 가입돼 있다.

김승수 신임 협의회장은 향후 2년간 11개 슬로시티 회원 지자체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슬로시티 기본이념을 실현하고 공동사업 및 정책개발, 회원 도시 연계 상품개발, 공동 홍보마케팅 등을 통해 한국 슬로시티 발전을 앞장서 이끌게 됐다.

또한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슬로시티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국제 슬로시티연맹 조정위원회 환영리셉션 지원 ▲국제슬로시티연맹총회 시·군 공동경비 지원 ▲슬로시티 공동 홍보물 제작 발간 ▲슬로시티 발전토론회 개최 ▲슬로시티 주민협의회 사무국장 교육 등 사무국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